

도시지역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한태¹⁾ · 남철현^{2)*} · 예준정²⁾ · 하태욱³⁾ · 오선영³⁾

¹⁾대구한의대학교, ²⁾계명문화대학, ³⁾대구과학대학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Degree of Leisure of the Elderly in Urban Areas.

Han-Tae Jung,¹⁾ Chunl-Hyun Nam,^{2)*} Chun-Jeong Yae,²⁾
Tae-Uk Ha³⁾ & Sun-Young Oh³⁾

¹⁾Dep. of Health Science, Deagu Hanny University

²⁾Dep. of Public Health Adm. Keimyung College University

³⁾Dep. of Health Education, Deagu Science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o figure out the degree of leisure satisfaction of elderly's life.

Method: A total of 1,015 person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cities. This survey was performed by college students from July 1 through October 31, 2008.

Results: 1. The level of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was 8.58 ± 0.24 of 15 points(57.2points of 100 points).

2. The average satisfaction degree of leisure was 2.92 ± 39 (58.8points of 100). Of the study subjects, females, a group over 65-69, singles, the persons spending petty cash over 1.1 million won a month, the persons living with 3-4 family members and the subjects living with children had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than other groups.

3. The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leisure satisfaction by regression analysis were age, gender, marital status, amount of petty cash, education level,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utilization of social service agency, current health status. The influence level of those variables was 36.1%.

Conclusion: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special activity program for their pleasant leisure time. The recreation and leisure program for the elderly should be implemented to provide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Children should be encouraged to live with their parents. All elderly welfare related agencies such as government, NGOs and professionals have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elderly.

· 접수: 2011년 5월 30일 · 수정접수: 2011년 7월 14일 · 채택: 2011년 10월 21일

* 교신저자: Chul Hyun Nam, Dep.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전화: 82-53-589-7590, 전자우편: chnam777@hanmail.net

Key words : leisure life, satisfaction, elderly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노인이 501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¹⁾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년기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쇠퇴하는 시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당면하게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위기 상황이 예상된다. 즉, 생리적, 신체적으로 약화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측면의 변화를 겪게 되며 소외감 등 새로운 사회적 상태에 대한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²⁾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놀이(play),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등 여가(leisure)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이 생활화된다면 휴식, 피로회복, 적절한 운동 등을 통한 건강생활을 할 수 있고 외로움에도 벗어날 수 있으며, 건강수명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짧아지는 근무연한으로 직장을 빨리 그만 두게 되어 많아지고 있는 여유 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는 사회복지 측면과 여가생활 활용 측면에서 하나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³⁾

일반적인 여가의 의미가 생산 활동의 휴식이나 생활의 재충전으로의 여가의미와는 달리 노인의 여가는 생리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여가활동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특징을 가

지므로 따라서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⁴⁾ 동서양을 막론하고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여가생활이 발전해 왔으나 노령인구를 위한 여가선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대중화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윗놀이, 풍물놀이, 자치기, 노래방, 화투 등으로 많이 있으나 시대적, 문화적 변화로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다.

놀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행동으로 감각을 일깨우며, 자아, 학습, 그리고 사회의 발견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전인적인 인간형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진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시간의 유익한 활용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원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경험을 준다. 그리고 경험 속에서 결속을 가져다준다. 또한 참여과정과 관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정서적 상태로 인식될 수도 있다.⁵⁾⁶⁾⁷⁾

노인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건강생활을 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여가생활만족 프로그램 개발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조사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며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방법으로 노인들의 여가생활만족도에 대한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분석하여, 여가정책을 사회복지와 건강 확보 차원에서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의 인구학적, 사회 및 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수준과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 2) 노인의 인구학적, 사회 및 경제학적 특성별

여가만족도 수준과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3) 노인의 여가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개념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적 역
할이 감소되는 것과 관련하여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연령에 의한 구분 역시 Reed Larron⁸⁾과 Pearlín,
L., et al.⁹⁾은 60세가 일반적으로 중년과 노년기
를 구분지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전봉천 등¹⁰⁾
의 연구결과에서도 노인으로 생각되는 나이에 대
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60세 이상으로 보았다.
한편,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령인구에 대한 경
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65세 이
상을 노령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2. 여가(Leisure)의 이해

1) 여가의 의미

여가의 의미는 첫째, 노동 그리고 노동과 연
결된 책임 또는 그 밖의 생활 유지활동에 투
자하지 않는 개인시간의 일부분. 즉, 여가=자
유재량 시간 또는 책무가 없는 시간을 말한다.

둘째, 선택의 자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고, 그것이 일이든 아니든 반드시 전체에 유용
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는 관례적으
로 자기 충일, 휴식, 또는 즐거움에 대한 개인
적인 욕구에 부응하거나 사회의 안녕에 기여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 진다.

셋째, 여가는 삶을 풍요롭고 흥분되게 만들
어주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쓰여

지는 방법이나 그것이 가져다주는 심리 사회
적인 보상에 있어 한계가 없다.

넷째, 여가는 전체적으로 이완되고 비구조화
되고 억압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측하지
가 마비된 신체 장애인이 놀이하는 것. -이마
에 끈으로 붓을 묶고 그림을 그리거나 스포츠
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 을 볼 때, 우리
는 자기 표현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충동
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 수가 있다.⁶⁾⁷⁾¹¹⁾

2) 여가관련 선언 및 규정

(1)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
언 제24조에는 ‘휴식과 여가에 대한 관리가 기
록되어 있다(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¹²⁾

(2) 1967년 International Charter for Leisure
의 제1조 “모든 사람은 여가시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표명하고 있다.

(3) 1985년 3월 1일 시행된 사회교육법시행
령(제정 83.9.10 대통령령 제11230호)13 제2조
사회교육의 영역 제6항에 ‘여가교육’을 포함시
켰다.¹³⁾

(4) 1998. 10.25. 발표된 ‘청소년 헌장’ 14에는
청소년의 진리추구, 자아실현, 일과 직업의 선
택, ‘여가의 향유, 문화 예술 활동의 자유로운
참여’ 그리고 매체의 접근에 대한 권리를 표명
하고 있다.

3. 생활만족도

1) 생활만족도의 개념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
래 선진 각 국에서 고도의 산업화로 물질적 풍
요를 누리고 있지만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
복스러운 생활은 보장되지 못한다는 회의(懷疑)

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생활만족도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Neugarten 등¹⁴⁾이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이탈이론(disengagement theory)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사기(morale), 행복감, 심리적 안녕상태(psychological well-being), 적응(adjustment) 등의 단어와 혼용되어 왔으므로, 생활만족도를 삶의 만족도와 어떻게 구별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계속 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¹⁵⁾

최현¹⁶⁾은 “생활의 만족도는 각 개인이 신체, 정신,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 느끼는 주관적 안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의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만족도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Lawton¹⁷⁾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생활만족도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지위와 활동 그리고 건강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만족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⁸⁾

2) 노인의 생활만족도

Reed Larron⁸⁾은 노인에게 있어 생활만족을 주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상태, 사회활동 등이 주요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김철진¹⁹⁾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교 활동 참여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한

노인일수록, 재산상속을 완료하지 않은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고령화 생활만족도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는데 특히 노인은 긴 여가시간, 역할상실, 수입절감, 건강의 약화, 부양 및 보호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로 대별되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이 아직도 빈약한 실정이다.²⁰⁾

3)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

여가만족이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혹은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²¹⁾ 즉, 일반적인 여가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와같은 긍정적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가 만족됨으로서 야기된다.

여가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여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는 Beard & Ragheb²²⁾에 의해 51문항이 개발되어 한국어로 번역되고 이를 이종길²⁴⁾이 활용하였고 김영미²³⁾는 24문항(교육적, 심리적, 생리 및 휴양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분류)으로 줄여서 활용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60세 이상의 노인인 만큼 복잡한 문항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5개 문항으로 줄여 조사하였으며 매 항목별로 Likert 5점 척도로 처리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기간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도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의 여가활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교육적).	1	2	3	4	5
(2) 현재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한다(심리적).	1	2	3	4	5
(3) 현재의 여가시간은 충분하다(생리 및 휴양적).	1	2	3	4	5
(4) 현재의 여가활동을 같이 즐길 사람이 주위에 많다(사회적).	1	2	3	4	5
(5) 여가를 즐길 장소나 시설이 충분하다(환경적).	1	2	3	4	5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각 100명씩 600명, 중소도시(성남시, 안동시, 충주시, 익산시, 경산시, 김해시에서 각 100명씩)에서 600명, 총 1,200명을 편의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정하였다. 수집된 조사 설문지는 1,015매였으며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전산처리는 1,015명의 응답지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4개월간이며, 조사자는 대학생을 조사원으로 교육시켜 가정, 노인대학, 아파트의 노인회관 또는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조사하거나, 조사지역 대학교의 대학생들에게 조사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노인들을 면접 조사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논문²⁵⁾²⁶⁾²⁷⁾을 참조하여 작성하였고 60~70세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이 논문의 최종 설문지로 하였다. 설문지는 여가생활만족도(5문항), 일반적 특성(11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부호화하여 기제가 불명확하거나 분석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응답지를 제외한 1,015매(총1,200매의 84.6%)를 최종 분석 자료로 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가 최소 0.6425에서 최대 0.9536으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²⁸⁾

IV. 조사결과

1. 인구학적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조사의 분석에서는 이를 분석모형에 맞추어 구분하고 사회과학적으로 조사대상을 세분화하면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표는 두 특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보면<Table 1>, 여자가 64.3%로 남자의 35.7%

Table 1.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변 수	실수(명) 1,015	백분율(%) 100.0
성별	남	362	35.7
	여	653	64.3
연령	60-64	206	20.3
	65-69	191	18.8
	70-74	309	30.4
	75-79	166	16.4
	80≤	143	14.1
결혼상태	기혼(유배우자)	506	49.9
	독신(미혼, 이혼, 별거, 사별)	509	50.1
월용돈(만원)	≤10	144	14.2
	11~40	453	44.8
	41~70	289	28.5
	71~109	57	5.6
	110≤	72	7.1
동거가족수(명)	1	301	29.7
	2	238	23.4
	3	179	17.6
	4	196	19.3
	5	101	10.0
동거현황	혼자 삶	161	15.9
	부부끼리	397	39.1
	미혼 손·자녀와 함께	41	4.0
	결혼한 아들 딸과 함께	367	36.2
	친인척과 함께	28	2.8
	양로원	21	2.1

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70~74세군에서 30.4%로 가장 높았고 60~64세군이 20.3%, 65~69세 군에서 18.8%, 75~79세군에서 16.4%, 80세 이상이 14.1%의 순이었다.

결혼 상태별로 보면 독신(이혼, 별거, 사망)이 50.1%, 유배우자가 49.9%였다.

월 용돈은 11~40만원이 44.8%로 가장 높았고 41~70만원이 28.5%로 다음이었으며 10만

원 이하는 14.2%였고 100만원 이상은 7.1%에 불과하였다.

동거가족수는 1명이 29.7%로 가장 높았고 2명이 23.4%로 다음이었으며 4명이 19.4%, 3명이 17.6%, 5명 이상이 10.0%였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보면<Table 2>,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학력이 33.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9.6%, 고등학교 18.9%, 무학이 10.5%, 대학 졸업 이상이 7.4%의

Table 2.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변 수	실수(명) 1,015	백분율(%) 100.0
교육수준		
무학	107	10.5
국퇴/졸	341	33.6
중퇴/졸	300	29.6
고퇴/졸	192	18.9
대퇴/졸 이상	75	7.4
종교		
기독교	189	18.6
천주교	64	6.3
불교	531	52.3
무교 및 기타	231	22.8
직업유무(현재)		
있음	207	20.4
없음	808	79.6
과거직업		
행정·사무직	72	7.1
전문직	106	10.4
전업 주부	370	36.5
판매서비스업	106	10.4
근로자	79	7.9
공무원 및 군인	86	8.5
기타	50	4.9
무직	146	14.4
복지관이용		
이용 안함	637	62.8
이용 함	378	37.2

순이었다.

현재 직업이 있다는 20.4%였고, 과거 직업별은 전업주부가 36.5%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 판매서비스업이 10.4%, 공무원 및 군인이 8.5%, 근로자가 7.9%, 행정 사무직이 7.1%였다. 복지관 이용률은 이용 안한다는 응답률이 62.8%로 이용한다는 응답률 37.2%보다 월등히 높았다.

3. 인구학적 특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수준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은 5점 만점에 2.92±.39점(100점 기준 58.8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의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Table 3>.

인구학적 특성별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을 보면, 특성별에서는 성별로 보면 여자가 2.97±.36로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연령별로 보면 65~69세가 2.98±.32로 가장 높았고, 60~64세가 2.92±.39, 75~79세가 2.89±.31, 80세 이상이 2.88±.45 순이었고 70~74세가 2.88±.39로 가장 낮았다(P<0.05).

결혼 상태별로 보면 독신자에서 3.12±.39점으로 기혼자의 2.87±.39점 보다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독신자는 유배우자보다 자유롭고 시간이 많으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가생활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월 용돈을 보면 110만원 이상이 2.96±.38점으로 가장 높았고 71~109만원이 2.94±.36으로 다음이었으며, 10만원 이하가 2.82±.46으로 가장 낮아 용돈이 적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동거가족수(본인 포함)로 보면 4명에서 2.97±.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명에서 2.96±.28점으로 다음이었다. 1명과 5명이상에서 각각 2.89±.38과 2.83±.31로 가장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4. 사회 경제적 특성별 여가생활만족도

사회 경제적 특성별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을 보면<Table 4>, 교육수준 별에서 중학교학력자에서 2.96±.35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가 공히 2.87±.39점으로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이 높은 자에서는 여가생활의 눈높이가 높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종교에서는 무교 및 기타가 2.97±.33으로 가장 높았고 불교와 기독교가 각각 2.92과 2.91점으로 비슷했으며 천주교가 2.87±.49점으로 가장 낮았다(P<0.05).

현재의 직업유무에서는 무직자가 2.92±.36점으로 유직자 2.91±.44점 보다 약간 높았는데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유직자는 직장관계로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노화현상으로 직업상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직업에서 보면 전업주부가 3.00±.3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행정사무직 2.97±.43, 전문직이 2.96±.27, 공무원 및 군인이 2.95점, 정도로 비슷했으며 무직이 2.79±.45로 가장 낮았다(P<0.001).

복지관 이용에서는 이용한다는 자에서 여가만족도가 2.94±.31점으로 이용안하는 자의 2.86±.39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5.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P<0.01), 성별(P<0.05), 월 용돈(P<0.05), 교육수준(P<0.05), 종교 유무(P<0.05), 동거가족수(P<0.01), 동거현황(P<0.05), 현직업유무(P<0.05), 과거직업유무(P<0.001), 복지관이용유무(P<0.01), 현 건강상태 수준(P<0.001)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들

정한태 외 4인 : 도시지역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The degree of leisure satisfaction of elderly's life by demographic variables.

변 수	N	M±SD	F(df)	P값
<hr/>				
연령	1015	2.92±.39		
60-64	206	2.94±.39	2.690(4)	.030*
65-69	191	2.98±.32		
70-74	309	2.88±.39		
75-79	166	2.89±.31		
80≤	143	2.88±.45		
성별				
남	362	2.87±.39	16.109(1)	.000***
여	653	2.97±.36		
결혼상태				
기혼(유배우자)	506	2.87±.39	7.554(1)	.001**
독신(미혼, 이혼, 별거, 사별)	509	3.12±.39		
월용돈(만원)				
≤10	144	2.82±.46	3.927(4)	.001**
11-40	453	2.84±.37		
41-70	289	2.90±.36		
71-109	.57	2.94±.25		
110≤	.72	2.96±.38		
동거가족수(명)				
1	301	2.89±.38	3.546(4)	.000***
2	238	2.94±.46		
3	179	2.96±.29		
4	196	2.97±.35		
5	101	2.83±.31		
동거현황				
혼자 삶	161	2.88±.36	3.159(5)	.008**
부부끼리	397	2.89±.38		
미혼 손·자녀와 함께	.41	2.93±.44		
결혼한 아들 딸과 함께	367	2.98±.36		
친인척과 함께	.28	2.90±.42		
양로원	.21	2.80±.22		

Table 4. The degree of leisure satisfaction of elderly's life by socio-economic variables.

변 수	N	M±SD	F(df)	P값
	1,015	2.92±.39		
교육수준				
무학	107	2.97±.33	1.272(4)	.279
국퇴/졸	341	2.91±.42		
중퇴/졸	300	2.90±.35		
고퇴/졸	192	2.87±.39		
대퇴/졸 이상	75	2.87±.30		
종교				
기독교	189	2.88±.33	3.746(3)	.011*
천주교	64	2.86±.49		
불교	531	2.95±.39		
무교 및 기타	231	2.97±.33		
직업유무(현재)				
있음	207	2.91±.44	1.863(1)	.173
없음	808	2.92±.36		
과거직업 유무				
행정·사무직	72	2.97±.43	9.378(7)	.000****
전문직	106	2.96±.27		
전업 주부	370	3.00±.30		
판매서비스업	106	2.83±.30		
근로자	79	2.82±.27		
공무원 및 군인	86	2.95±.37		
기타	50	2.80±.45		
무직	146	2.79±.55		
복지관이용				
이용 안함	637	2.86±.39	7.768(1)	.000**
이용함	378	2.94±.311		
건강상태				
건강한 편	189	2.97±.25	5.343(2)	.000****
보통	531	2.86±.27		
나쁜 편	295	2.78±.26		

* P<0.05 ** P<0.01 *** P<0.001 5점 만점

의 설명력은 36.1%였다<Table 5>.

즉, 연령은 60대에서, 성별은 여자에서, 월 용돈이 많을수록, 종교를 가진 자에서, 건강할수록 현 직업은 없을 때, 과거직업은 있을 때에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은 높았고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에서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은 높았다.

V. 고 찰

여자에서 여가만족도 수준이 남자보다 높은 것은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부분 여자가 가정에서 재정권을 쥐고 있으며, 여가시간이 많아

친구들과의 친목모임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겠다.

연령이 젊을수록 여가생활을 많이 가짐으로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된다.

사회경제적 여가만족도 조사결과는 김상욱,²⁹⁾ 지승훈³⁰⁾의 연구결과와 용돈, 동거가족유무에서 여가생활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동거현황별로 보면 결혼한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자에서 2.98±.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미혼, 손자녀와 함께가 2.94±.44로 그 다음이었다. 양로원에 있다는 자는 2.80±.22로 가장 낮았다.

혼자 산다(2.88±.36)는 자와 부부끼리(2.89±.38)

Table 5. The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elderly's life by regression analysis

변 수	b	표준오차	베타	t	P값
연 령	-.167	.060	-.095	-2.777	.006**
성 별	.525	.181	.110	2.893	.044*
결혼상태	-.104	.087	-.045	-1.194	.233
월 용 돈	.122	.072	.055	1.683	.043*
교육수준	-.143	.079	-.068	-1.798	.042*
종교 유무	.134	.070	.059	1.912	.046*
동거 가족수	-.190	.065	-.113	-2.942	.003**
동거현황	.135	.066	.076	2.063	.039*
현 직업유무	.450	.198	.079	2.273	.023*
과거 직업유무	-.140	.033	-.131	-4.233	.000***
복지관이용유무	-.260	.083	-.095	-3.126	.002**
현 건강상태	.629	.100	.221	6.265	.000***
R^2			.361		
F			11.216		
sig F (df)			.000(17)		

* P<0.05 ** P<0.01 *** P<0.001

연령 : 60~69=64.5, 70~79=74.5, 80~89=84.5,

성별 : 남=0 여=1, 결혼상태 : 독신=0 기혼=1, 교육수준 : 무학=0 국졸=6 중졸=9 고졸=12

대졸=14 이상, 종교유무 : 유=1 무=0, 동거현황 : 유=0 무=1, 현직업유무 : 유=0 무=1,

과거직업유무 : 유=0 무=1, 복지관시설 이용 유무 : 유=0 무=1,

현 건강상태 : 건강한 편=3, 보통=2, 불건강한 편=1,

산다는 자는 여가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는 자식과 함께 생활하는 자는 생활환경이 각박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도 적으며, 외로움도 적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여가생활을 좀 더 즐길 수 있다.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의 삶은 가정생활이 건조하고 단조롭기 쉬워 오히려 여유가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Stewart³¹⁾ 등의 연구³⁰⁾에서는 현재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록 행복감과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고 하체구³²⁾는 여자가 남자보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영길,³³⁾ 최연희와 남철현,³⁴⁾ 정한태 등,³⁵⁾ 김병화 등,³⁶⁾ 김재돈과 남철현³⁷⁾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생활수준, 용돈수준, 동거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형하²⁷⁾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의 만족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즉, 건강한 노인일수록, 사회생활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김상욱²⁹⁾과 지승훈³⁰⁾의 종교유무, 복지관 사용유무, 경제상태(월용돈)변수에서 여가생활만족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수준별로 보면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는 응답자의 여가생활만족도는 2.97 25, 건강상태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자에서 2.86 27, 나쁜 편이라는 응답자에서는 2.78 26점으로 건강상태수준이 좋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오늘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함으로써 노년기의 생활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생활 만족

도 수준은 사회 경제적 변수인 종교별, 과거 직업별 그리고 복지관 시설 이용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젊은 시절의 여가선용과 관련복지시설 이용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³⁸⁾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연령은 60대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더 늙으면 건강상태 등 이유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놀이 등 레크레이션을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연령에 맞는 놀이나 레크레이션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바둑, 미술치료, 음악치료, 댄스 등은 좋으나 화투, 카드 등 놀이는 두뇌활동에는 좋으나 금전관계가 개입되면 좋지 않다. 월 용돈이 많을수록, 종교를 가진 자에서, 건강할수록 여가만족 수준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나 여자에서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은 여권이 신장되고 있는 현대 시대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남자의 여가생활이 활발해 지도록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직업은 없을 때, 과거직업은 있을 때에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은 높았는데 이는 현직업이 없으므로 여가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 직업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수입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 복지회관 이용자에서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만큼 회관을 노인들이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더욱 갖추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VI.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여가생활만족도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총 1,015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조사는 대학생을

활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이었으며, 조사결과의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은 평균 2.92±.39점 (100점 기준 58.8점)으로 낮은 편이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만족도 수준을 보면, 여자에서, 65~69세에서, 독신자에서, 월 용돈 110만 이상 자에서, 동거가족수(본인 포함)로 보면 3명에서, 결혼한 아들딸과 함께 살고 있는 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와 혼자 산다는 자와 부부가 같이 산다는 자에서 여가만족도는 각각 낮은 편이었다.

사회 경제적 특성별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을 보면, 중학교 학력자에서, 종교를 가진 신자에서, 현 무직자에서, 과거직업이 전업주부에서, 그리고 복지관 이용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 각 변수들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여가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월 용돈, 교육수준, 동거가족수, 동거현황, 복지관이용 유무, 현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6.1%였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노인의 여가와 오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이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의 여가와 오락생활이 필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건강도 향상될 수 있는 베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민속 춤, 요가, 에어로빅 뿐 아니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장기, 바둑, 카드놀이 등과 같은 PRL(놀이, 게임, 레크레이션, 레저 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요양보호시설에 레크레이션 관련 시설을 확보하여 노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레크

레이션이 포함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복지 및 요양시설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권장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조직에서 노인의 월 용돈수준을 높이는 직업 창출과 놀이 문화 개발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사는 특히 자녀와 같이 삶을 누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적인 연구사업과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정부 관계당국의 정책수립은 물론 노인 및 보건교육 관련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8.
2. 남철현, 김광호, 이기남, 이선동. 예방의학과 보건학, 계축문화사. 2009.
3. 최성재,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4. 김윤정, 노인의 여가유형별 참여정도가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 강열우, 윤재섭, 한광일,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세한출판사, 2001.
6. Kraus, Richard, Recreation and Leisure in Mordern Society, 3rd. ed(Glenview, Illinois London:Scott, Foresman and Company, 19-49, 1984.
7. 남철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 보건요원의 역할, '98 국제학술대회, 한국보건교육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8. Reed Larron,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ns, J. of Gerontology 7: 53-63, 1987.

9. Pearlin, L et al.,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 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 pp.583-894, 1990.
10. 전봉천, 남철현, 최상규, 신두만, 김기열. 대도시 노인의 삶의 질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1(2), 124-137, 대한보건협회, 2005.
11. 양귀남.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12. 사회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230호), 1985.
13. 청소년현장, 1998.
14. Neugarten, B.I. Hivighurst, R.J., &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 of Gerontology* 16(2), 141, 1961.
15. Mannel, R.C. & Dupuis, S. Life Satisfaction in J.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vol.2) New York, Academic Press, pp.59-64, 1996.
16. 최 현. 건강수준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17. Lawton MP. A multidimensional view of quality of life in frail elders: in, Birren JE, et al,(eds).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frail elderly*. Academic press Inc: New York, 1991.
18. Edwards J. N & Klemmack,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4) pp.497-502, 1973.
19. 김철진. "전남 영광지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종교생활의 효과를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20. 권철, 남철현, 황해석, 정한태, 하순희, 민경진, 김석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대한보건협회* 32(1), 2006.
21. 권철과 남철현. 노인의 건강 만족도와 관련 요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13(1), 2009.
22. Beard, J. G & Ragheb, M.G..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1980.
23. 김영미, 불링동호인의 참여동기와 여가만족, 몰입경험, 생활만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7.
24. 이종길, 사회체육활동과 여가생활만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2.
25. 김성혜.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만족도와 관계연구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26. 김종숙.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27. 이형하.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28. 김종범, 사회과학 조사연구 방법론 워크북, 서울:석정, pp.112, 1988.
29. 김상욱, 노인의 여가생활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0. 지성훈, 노인의 여가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31. Stewart AL, King AC.,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Older Popula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Inc. 1994.
32. 하재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33. 이영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34. 최연희, 남철현 등, 노인 건강과학, 케어매니저 양성사업단, 정문각, 2007.
35. 정한태, 남철현, 김기훈, 정은경, 지역사회 주

- 민의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조사,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보건복지연구(ISSN 1598-0480)제11집, 2005.
36. 김병화, 남철현, 위광복, 김기열, 양승희. 경북지역 한방병원 내원 뇌졸중환자의 사회 의학적 조사, 한국역학회지, 19(2), 1997.
37. 김재돈, 남철현.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협회지 23(2). 173-192, 1997.
38. 김미향, 노인 여가시설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의료전공,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